

2010.04.26 미래정책연구실

□ 중국 대두 수요 증가로 가격은 3개월간 지속 상승

1) BusinessWeek(2010.04.16) 주요 내용

- 중국이 아르헨티나와의 무역분쟁으로 대두 수입이 제한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두유 수입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두 가격은 작년 11월에 가장 크게 상승한 이후 3개월간 급상승
 - 브라질 농림부 장관인 Wagner Rossi는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가인 중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대두 수입이 제한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의 수입을 늘릴 계획에 있다고 언급함.
 - 금주에 중국 국가 곡물유 정보센터(The China National Grain&Oils Informaion Center)에서는 4월에 430만 톤이 수입되었고, 5월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550만 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Prudential Bache Commodities LLC 조사국 부회장인 Anne Frick은 대두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는 시장심리에 낙관적인 영향을 계속 제공하면서 미국의 대두 공급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대두 선물가격은 작년 7월에 2센트(0.2%) 상승한 부셸 당 9.95달러 수준이었고, 이후 금년 1월 12일에는 부셸 당 9.99달러로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금주 대두 선물가격은 4.5% 상승하였으며, 이는 작년 11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미농무부는 대두 수확 전인 8월 31일에 1억 9,000만 부셸(515만 9,000톤)을 보유할 것이며 현재 비축량은 1억 3,800만 부셸로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함.
 - Anne Frick은 미국의 수출 증가가 대두 이월량을 1억 5,300만 부셸까지 감소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대두 공급 상황은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함.

- 대두는 미국에서 옥수수에 이어 2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로 생산액이 318억달러(2009년 기준)에 달함. 미국은 세계 최대 대두 생산 및 수출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임.

□ 미국의 쇠고기 관리 기준 부재

1) CNN(2010.04.14) 주요 내용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항생제, 살충제, 중금속에 의한 쇠고기의 오염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USDA 감찰관은 연방기구들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 잔여물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러한 위해 물질이 함유된 쇠고기가 시중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언급함.
 - 살충제 잔여물 검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리와 같은 중금속에 대한 정해진 허용기준이 없음. 이로 인해 2008년 멕시코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리 함량 기준치 초과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와 매우 유사한 쇠고기가 판매될 수 있었음.
- 또한 미국 소비자단체(The Consumer Advocacy Group Food and Water Watch)의 Tony Corbo는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고 지적하면서 항생제, 살충제 등은 인체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화학 잔여물 오염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coli과 Samonella와 같은 박테리아는 급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쇠고기에 함유된 화학 잔여물은 요리할 때 파괴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나타남.
- USDA는 감찰관의 권고에 따라 화학 잔여물 검사와 허용 기준 설정을 포함한 수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함.
 - USDA 대변인은 이러한 방안이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 안전성 협력 단체(Food Safety Working Group)를 창설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향후 FDA와 EPA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미국 쇠고기 생산자 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쇠고기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연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함.
- 미국 쇠고기 공급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쇠고기 산업은 소비자에게 가장 안전한 쇠고기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발표함.
- USA Today의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가 수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거치기 때문에 화학 잔여물의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쇠고기에 대한 이력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쇠고기 협회가 NAIS(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에 있어서 가축에 대한 포괄적인 이력추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발표함.